

**Costa Rica 열대림보호구의
숲해설 · 자연안내 자격제도 및 생태해설프로그램
연수 보고서**

2004년 12월

F · I · Q (숲해설 · 자연해설 자격제도 연구프로젝트 팀)

목 차

1. 연수목적과 방법

1) 연수목적

2) 연수방법

2. 연수준비

3. 연수일정

1) 전체일정

2) 세부일정

4. 연수내용

1) INBIO

2) Braulio Carrillo 국립공원

3) Manuel Antonio 국립공원

4) Monteverde 운무림 생물보전지역

5) Tortuegero 국립공원

5. 연수 평가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과 숲해설·자연해설 자격제도

6. 연수 성과와 후기

1. 연수목적과 방법

▪ 연수 목적

연수의 주목적은 숲해설·자연안내자의 자격(Qualitification)에 관한 연수에 있다. 이와 함께 코스타리카의 생태해설프로그램을 참관 혹은 참여함으로써 그 수행능력의 전문성에 대한 연수를 병행목적으로 삼았다.

이미 연수계획서에서 밝힌 바, 최근에 한국에서는 숲 해설, 자연해설로 통칭하고 있는 야외의 체험중심 환경교육이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의 질(Quality)과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체의 자질과 자격(Qualitification)에 관한 검증은 확인된 바 없이, 생태공원이나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 자원 봉사나 일용 또는 상용으로 고용되어 활동하기도 하고 소속된 단체의 활동가의 명칭을 내걸고 야외체험학습, 숲해설, 자연안내, 생태관광 등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상당히 형식적이거나 반복적인 지식전수 위주의 활동에 그치고 있고 프로그램의 경우도 해외사례의 단순한 모방 등에 그치고 있어서 이러한 숲해설, 자연안내, 생태관광 등 사회환경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무에 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그 수행능력이 검증되는 자격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숲해설(Foreset Interpretation)이나 자연안내(Nature guide) 등이 좀더 체계적이고 사회 환경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앞으로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좀더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따라서 이번 연수에서는 지구 땅의 불과 0.03%에 불과한데 세계동물의 5%나 서식할 만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 때문에 생태관광이라는 특수한 국가경제시스템을 구축한 코스타리카의 수십년간 축적된 자연체험과 생태교육 혹은 생태관광의 경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코스타리카의 자연안내자(Naturalist Guide)와 파크레인저(Park Ranger)등의 구조와 직무를 분석해보고, 그 수행능력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연수를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아울러 생태관광으로 조직화된 숲해설·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숲해설·자연안내의 질적 측면과 제도적인 상황을 검토해보는 것으로 그 목적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 숲해설 자격제도 연수라는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제도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수하기 보다는 **직접방문과 탐방 속에서 현장의 해설가들을 통해 그 제도적 장치와 현실에서의 그 자질을 확인 검증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다시말해 국가기관이나 세미나 중심의 연수는 실제로, 문서 검증이나 기록 등을 통하여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각각 지역의 현장 해설가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격제도의 논의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직접 탐방에 참여함으로써 가이드, 혹은 해설가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이렇게 방향을 정한데는 숲해설가의 자격제도 연수라는 큰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관심사가 이론적인 것 보다는 체험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을 쌓고 싶다는 팀원들 각자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는 코스타리카의 자격제도를 토의할 기관과의 접촉이 어려웠고 기간이 촉박했던 상황에서 코스타리카의 기관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형식적인 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자격제도 및 생태해설프로그램 연수를 기획하였다.

▪ 연수 방법

연수방법은 크게 다섯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코스타리카의 생태해설과 관광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 따라서 지역과 현장 등을 안배하여 결정하였다.

즉, 지역적으로는 해양지역의 생태해설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장치, 산악지역의 생태해설프로그램과 그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도심의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해설 프로그램과 해설자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공동워크샵과 같은 형식적인 연수보다는 직접 방문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수를 수행하였고, 패키지 생태관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심지역 중심의 숲해설·자연안내의 제도적인 측면과 생태해설 프로그램의 연수
-도심 생태공원인 인비오 빠르께(Inbio Parque)의 탐방과 숲해설·자연안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연수

2) 해양지역 중심의 숲해설·자연안내의 제도적인 측면과 생태해설 프로그램의 연수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태해설프로그램 참가와 해설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한 자격제도의 제도적인 측면 연수

3) 산악지역 중심의 숲해설·자연안내의 제도적인 측면과 생태해설 프로그램의 연수

-몬테베르데 열대림 보호구(사유림)을 중심으로 개인별 트레킹 및 스카이 워크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가

-브라울리오 까리요 국립공원 탐방

4) 교육기관 방문인터뷰를 통한 숲해설·자연안내의 제도적인 측면의 연수

-산따엘레나 직업고등학교 방문 인터뷰

-La selva Biological Station의 방문

5) 생태관광의 패키지 여행의 참여를 통한 숲해설·자연안내의 제도적인 측면의 연수

-또루뚜게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생태관광의 참여

2. 연수준비

1) 연수지역 기초자료조사

연수지역에 대한 조사는 영상자료, 도서자료, 콘텐츠 자료 등 동원 가능한 자료를 축적하여 연수대상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수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짚막한 논문이나, 생태관광에 대한 논문들,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코스타리카 대사관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촉급한 시간적여유가 없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였다.

연수지역조사는 연수방법에 따른 다섯 지역 혹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조사되고 활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인터넷 사이트

www.inbio.ac.cr , www.visitcostarica.com , www.monteverde.com ,
www.laselva.ac.cr

2) 참고 도서,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사계절), Costa Rica (The Rough Guide)

3) 관련 기관 : 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 KOTRA

2) 연수 준비과정

연수준비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총괄 진행은 유영초가, 연수지역 관계자 접촉은 박희, 사전 정보취합과 준비물 등은 김희정, 항공편 등과 관련된 것은 김지연, 영상물 준비 등은 정상배가 맡았다.

사전정보취합을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김현, 코스타리카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았다. 공동의 물품구입 등 준비물은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연수지역 관계자 접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지 코디를 위한 연락선의 확보는 현지 교민 김석만 씨와 KOTRA 코스타리카 관의 김기중 관장의 도움을 받았다.

KOTRA의 김기중 관장의 소개를 통해 획득한 코스타리카 관광청 ICT의 경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현씨로부터 취득한 INbio의 연락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메일을 통한 접촉과, 전화접촉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은 현지 교민 김석만씨와의 접촉을 통해 일정과 프로그램을 일부 재조정하였다.

확실한 합의를 토대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연수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공동 워크샵과 같은 형식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준비과정에서 연수의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코스타리카 관광청 ICT와의 워크샵의 방법은 포기하고 직접 방문연수와 해설프로그램의 직접 참관을 통한 숲해설 자격제도의 검증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연수준비과정에서 팀원이 일부 교체 되었다. 최초 팀원으로 구성되었던 이종민과 한대웅의 경우 각각 개인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하였다. 중간 회의 끝에 일부에서는 그 인원을 빼고 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초의 목적의 달성과 기금의 성격상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당초 역할분담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대체자를 물색하였다.

통역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던 이종민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는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부분에 일정한 연구경험이 있고, 통역역량이 되는 자를 물색하였고, 또 한대웅을 대신할 참가자로는 가급적 지역출신의 인원으로 선정하여 교보재단의 혜택이 지역으로도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교체 투입된 팀원은 박휘, 정상배이다.

3. 연수일정

1) 전체 일정

날 짜	방 문 지
9월 22일	산호세 도착
9월 23일	INBIO 방문/ 가이드 투어 및 클라우드 교수 면담
9월 24일	브라울리오 까릴로 국립공원 탐방
9월 25일	산호세에서 마누엘 안토니오로 이동
9월 26일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 가이드투어/ 몬떼베르데로 이동
9월 27일	몬떼베르데 보전림 탐방/ 개구리전시관, 뱀전시관 탐방
9월 28일	몬떼베르데 스카이 트랙, 스카이워크 체험/ 산타엘레나 하이스쿨 탐방 아레날로 이동/ 아레날 화산, 용암분출 장면 관찰
9월 29일	사라삐끼 OTS/ 라셀바 연구소 방문
9월 30일	뚜르뚜게로 국립공원 가이드 투어 바나나농장/ 배타고 야생동물 관찰/국립공원 탐방/ 청거북 산란 야간 투어
10월 1일	배타고 야생동물 관찰 투어/ 산호세로 이동
10월 2일	산호세 출발

2) 세부 일정

□ 9월 23일 - INBIO

코스타리카의 수도인 산호세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인비오 파크가 자리하고 있다. 인비오파크는 1998년부터 원래 커피농장이었던 지역에 열대 우림 식생을 이식해 조성했는데 2000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코스타리카의 중심적인 환경교육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에는 매일 가이드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운 기후 탓에 이른 출근시간에 맞춰 투어도 아침 8시부터 이루어졌다. 매표소에는 매일 이루어지는 투어와 주말 특별 프로그램이 모두 게시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한 안내도 친절했다.

우리는 아침 8시 투어를 참가해보기로 했다. 비용은 1인당 15불, 코스타리카의 물가에 비해 비싼 편이었다. 젊은 가이드와 인사를 하고 먼저 프로젝션 룸으로 향했다. 프로젝션 룸에서는 20분 가량 되는 영상물을 시청했는데, 코스타리카의 자연생성과정과 인류의 등장과 적응과정, 그리고 열대우림 파괴과정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열대의 생물 종을 지키기 위한 코스타리카의 연구와 노력에 관한 내용이었다.

코스타리카의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미리 쌓는다는 점에서 영상물 관람은 의미가 있었다.

영상물 관람 후 본격적으로 가이드 투어를 시작했는데, 음식물을 먹거나 큰 소리를 내면 안된다는 꼼꼼한 주의 사항을 듣고 탐방에 들어갔다. 가이드는 열대지방의 스콜을 견디기 위한 나뭇잎들의 모양과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의 열매를 지키기 위한 나무들의 전략, 열대우림에서 습기의 중요성, 죽은 나무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열대우림의 특성을 설명했다.

식물들의 특성을 들으며 트레일을 걷다보니 초가집 형태의 가건물이 나왔다. 그것은 개구리 전시관이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개구리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총 10종의 개구리가 있었다. 이중 3종이 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Dendrobates auratus*라는 빨간색 개구리는 주로 브로멜리어드 잎에만 알을 낳기 때문에 식생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개구리들은 대부분 크기가 아주 작는데, 랜턴으로 가이드가 비춰주며 설명을 했다. 이후 거미전시관, 개미전시관도 차분한 설명과 더불어 관람할 수 있었다. 트레일 사이사이에 이런 전시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탐방을 흥미롭게 만들었다. 또한 가이드는 인비오 파크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생물학 전공자는 1주간 공원과약을 한 후 이틀에 걸쳐 해석 방법 등을 교수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공원에서 자원봉사로 일한다고 한다.

탐방 마지막 코스는 시청각 교육실, 국립공원을 포함해 29개 보전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나 새소리 해변의 파도소리를 해당지역의 사진과 함께 들려주며 지역의 특성과 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일깨워주었다.

이후 인비오 파크 이사이자 OTS(Organization for Tropical Studies) 부회장인 클라우디아 교수 면담을 통해 현재 코스타리카의 환경교육방향과 지역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보전지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지역아마추어전문가가 생물종 조사에 참여하는 생물종 보전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면담 후 클라우디아 교수는 가이드투어에 포함되지 않는 인비오 파크 여러 곳을 직접 안내해 주었다.

□ 9월 24일 - 브라울리오 까릴로 국립공원

산호세에서 23km떨어진 헤레디아 지방에 위치한 브라울리오 까릴로 국립공원. 도로 사정은 좋은 편이지만 우기에는 매일 비가 내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 아스팔트가 뚫린 곳이 많아 운전엔 주의를 요한다. 국립공원의 면적은 50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데, 6000종에 가까운 생물 종들이 서식하고 있어 코스타리카에서도 생물종의 보고(寶庫)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국립공원은 모두 4개의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 센테로스 지구를 탐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구를 찾기 힘들었던 것을 시작으로 매표소만 덜렁 있을 뿐, 방문자센터

도 없고, 동행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파크레인저나 생태가이드는 없었다. 매표를 하는 파크레인저는 영어가 서투러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 센데로스 지구에는 2개의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 한 곳은 3시간 코스, 또 1곳은 1시간 반 코스라고 했다. 오후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몰라 우리는 짧은 코스를 탐방해보기로 했다.

경이로운 열대우림과 큰 나무에 공생하는 다양한 식물들과 습도를 유지하는 이끼류,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모양의 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

□ 9월 26일 -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

산호세 남쪽, 태평양에 면한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 고산지대인 산호세에 비해 이곳은 낮기온이 30도씨가 넘어가는 전형적인 열대의 기후를 나타내는 해안지역이다. 전날 미리 가이드투어를 예약해놓고 아침 7시 30분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가이드는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누엘 안토니아도 한때 미국인 소유의 당근농장이던 곳을 2차림을 조성해서 1972년 국립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국립공원의 역사 설명으로부터 가이드투어를 시작했다.

가이드투어는 망원경을 이용한 야생동물 관찰이 중심이었다. 해오라기 모양의 제물크라운헤론, 그린스로우헤론, 브라운펠리칸, 허밍버드 등 다양한 새들을 관찰하고 지저스크라이스트도마뱀을 비롯한 여러 종의 도마뱀, 긴코박쥐, 아르마넬로, 다람쥐원숭이, 흰얼굴원숭이, 홀로명키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의사보다 되기 어렵다는 코스타리카의 생태 가이드, 우리를 안내했던 가이드는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중간 중간 식물에 대한 특성도 설명을 했는데, 식물의 학명까지 줄줄 외울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베테랑으로 탐방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다.

가이드 탐방을 마친 후, 이 지역 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식생, 지리학, 생물학, 곤충학, 언어 등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치러야함을 알게 되었고, 생태관광이 발전한 나라인 만큼 가이드들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실제 수입이 농부는 월 300불, 은행원이 월 600불정도 되는데 성수기에 가이드는 월 2000불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 9월 27일 - 몬떼베르데 보전림

코스타리카로 출발하기 전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몬떼베르데. 아스팔트길에서 몬떼베르데까지는 무려 2시간가량을 비포장 길을 달려야했다. 포장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열대우림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몬떼베르데로 올라가는 길은 대부분 나무들을 자르고 목초지를 조성한 소목장이었다. 보전림의 오너는 모두 52명으로 입장수입을 대부분 보전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한다. 하루에 입장객을 160명으로 제한하는데, 가이드투어

가 있었지만 마누엘 안토니아 국립공원처럼 야생동물, 특히 새들 관찰 위주여서 우리는 셀프가이드로 탐방을 해보기로 했다.

3시간 정도의 트레일 코스를 통해 12불이라는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숲을 만날 수 있었는데 브라올리오 까틸로와는 다른 느낌의 고산지대의 식생이었다. 특히 트레일 정상부에서 만난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르는 대륙분수령의 감동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그러나 셀프가이드가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에 비해 정작 가이드책자는 스페인어로만 되어 있어 우리에게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중간 중간 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들었다.

오후에는 몬떼베르네 시가지에 있는 개구리 전시관과 뱀 전시관을 둘러보았는데 20여종의 개구리와 30여종의 뱀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홍보전의 일환이라기보다 상업적인 목적의 전시관이어서 전체적인 생태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 9월 28일 - 몬떼베르데/ 산타엘레나 하이스쿨

몬떼베르데에서 안 해보면 후회한다는 스카이트랙과 스카이워크를 경험했다. 스카이트랙은 몬떼베르데 산타엘레나 보전림 인근에 여러 개의 철탑을 세우고 철탑사이를 쇠줄로 길게 연결해 놓은 것을 타고 내려오는 일종의 고공 줄타기이다. 8개의 다양한 스카이트랙이 있었는데 높은 곳을 활공하는 독특한 경험이었다. 내려다보는 열대우림의 울창함은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스카이트랙 가이드는 행동요령만 얘기해 줄 뿐, 중간에 다음 트랙을 하러 가는 동안 거쳐 가는 숲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보전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곳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스카이트랙이 쓰인다면 의미가 있을 듯하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다.

철탑구조물 위에 만들어진 6개의 다리를 걷는 프로그램이 스카이워크이다. 위에서 내려다 본 숲과는 달리 키 큰 나무의 윗부분의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높은 나무 위에서 열매나 꽃의 꿀을 먹는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원색의 알록달록한 색들을 가진 새들은 손가락만한 벌새에서 맹금류까지 1시간 반 가량의 스카이워크 트레일에서 30종 이상 만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미리 면담을 신청해 놓은 산타엘레나 하이스쿨을 방문했는데 국립 실업계 학교인 이곳에서는 에코투어리즘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총 7개 과목 이수(관광자원/ 생태학/ 환경교육/ 환경정책/ 환경보전/ 종다양성/ 응급처치)을 이수해야하는데 10학년은 총론, 11학년은 분야별 각론, 12학년은 각론+ 영어과목을 중심으로 수업한다. 12학년은 320시간을 국립공원이나 보전지역으로 자원 활동 실습을 가야하는데 에코투어리즘 고교이수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다.

□ 9월 29일 - OTS

코스타리카의 가장 큰 열대 생물종 연구소가 있는 OTS(Organization for Tropical

Studies), 한국에서부터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전에 약속을 하지 못했지만 일단 연구소에 방문을 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무참히 깨지고 공식적인 면담은 할 수 없었다. 안내데스크에서 간단한 소개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라삐끼 지역에 3개의 조직이 (OTS /La Selva- 생물종 연구소 / OET - 생물종 교육원)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셀프가이드는 없고 가이드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가이드 투어 말고도 이 지역에 산악자전거나 래프팅 같은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어 상업적인 운영이라는 인상이 들었다. 그에 반해 기프트 숍 상품이나 안내책자, 생물종 자료가 특화되지 못해 실망스러웠다.

□ 9월 30일 - 뚜르뚜게로 국립공원

산호세에서 뚜르뚜게로까지 이동이 쉽지 않아서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패키지 투어상품을 예약했다. 그런데 산호세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가이드로 나와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가이드 투어를 할 수 있었다. 뚜르뚜게로까지 이동하는 중간에 브라올리오 까릴리 국립공원의 식생적 특징도 설명 듣고 바나나농장을 견학하기도 했다. 헬기로 농약 살포하는 열악한 환경과 그 안에서 일하는 고소득 바나나농장 노동자의 비에는 주변에 야생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사실로 드러났다.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뚜르뚜게로 국립공원, 배를 타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했다. 가마우지, 흑조, 뚜간, 타이 거헤론, 블루히어로 같은 새들과 이구아나, 케이먼 엘리게이터, 흰얼굴원숭이, 스파이더 원숭이, 콩고원숭이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숲 탐방을 했는데, 전문적인 생태지식이 있는 가이드 덕분에 열대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간에 이루어진 청거북 산란 관찰 프로그램이었다. 1970년대 초반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합의과정을 거쳐 보전전략 세웠다고 하는데 거북에 대한 정부의 교육이 있었고 서식지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서약을 통해 입장허가증 발급을 발급해 주민들이 직접 거북을 모니터링하고 보전 활동을 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거북산란 투어의 가이드를 맡으며 비수기에는 보트나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국립공원 입장수입은 지역으로 환원해서 탁월한 보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예전엔 거북을 사냥하던 지역민들이 감시자, 안내자, 보전주체로 변모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중미 3000KM에 달하던 거북 산란지가 지금은 30KM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낮에는 해변입장객을 400명으로 밤에는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산란을 위해 올라오는 거북과 산란 중인 거북, 산란을 마치고 바다로 돌아가는 거북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 10월 1일 - 뚜르뚜게로 국립공원

다음날 오전 우리는 배를 타고 국립공원 주변의 강을 다시 탐방했다. 최근 부레옥잠이 너무 퍼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이곳도 습지가 많고 강폭이 좁았는데 배의 이동 편이를 위해 습지를 연결해 넓혔다고 한다. 그러나 먹을 것 외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전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가에는 키 큰 나무들이 줄을 서 있는데 나무들이 뿌리를 비대하게 만들어 홍수를 대비하고 물에 풍부한 유기물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원숭이나 이구아나를 발견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배의 선장은 정말로 훌륭한 안내자였다. 뚜르뚜게로의 친절하지만 보전에 있어 엄격한 지역주민들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4. 연수내용

1) INBIO

1. 공원의 기본 정보

INBio 공원은 코스타리카 산호세의 도심에 있는 생태관광(eco-touristic) 공원이다. 여기에는 중앙 계곡 열대림, 습윤한 열대림, 그리고 열대성 건조림, 습지 등을 조생해 놓고 코스타리카의 대표적인 식생을 관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 약 51종의 새와 583종의 식물 중 그리고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 인비오 파크의 정문

공원의 위치는 산호세 Heredia의 Santo Domingo의 마을에 있으며, San Jose 중심가로부터 15 분가량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 인비오파크는 1998년부터 원래 커피농장이었던 지역에 열대 우림 식생을 이식해 조성했는데 2000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코스타리카의 중심적인 환경교육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2 공원 안내도

생물종 다양성(biodiversity)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몇 년 전 수목 희귀종을 식재한 이래 많은 수목이 심어졌고 차츰 식물원 형태를 갖추어 나왔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습지와 건조성 수목원 등을 조성하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나비 정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곳에는 매일 가이드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운 기후 탓에 이른 출근 시간에 맞춰 투어도 아침 8시부터 이루어졌다. 매표소에는 매일 이루어지는 투어와 주말 특별 프로그램이 모두 게시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한 안내도 친절했다. 우리는 아침 8시 투어를 참가해보기로 했다. 비용은 1인당 15불, 코스타리카의 물가에 비해 비싼 편이었다.

그림 3 해설자 Alexjandro의 생태해설

2. 생태해설 프로그램의 참가

1) 영상물 관람을 통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의 습득

젊은 가이드(Alexjandro 씨)와 인사를 하고 먼저 프로젝션 룸으로 향했다. 프로젝션 룸에서는 20분 가량 되는 영상물을 시청했는데, 코스타리카의 자연생성과정과 인류의 등장과 적응과정, 그리고 열대우림 파괴과정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열대의 생물 종을 지키기 위한 코스타리카의 연구와 노력에 관한 내용이었다. 코스타리카의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미리 쌓는다는 점에서 영상물 관람은 의미가 있었다.

2) 트레일과 전시관 탐방을 통한 가이드 투어

영상물 관람 후 본격적으로 가이드 투어를 시작했는데, 식물물을 먹거나 큰 소리를 내면 안된다는 꼼꼼한 주의 사항을 듣고 탐방에 들어갔다. 가이드는 열대지방의 스킨을 걷기 위한 나뭇잎들의 모양과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의 열매를 지키기 위한 나무들의 전략, 열대우림에서 습기의 중요성, 죽은 나무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열대우림의 특성을 설명했다.

식물들의 특성을 들으며 트레일을 걷다보니 초가집 형태의 가건물이 나왔다. 그것은 개구리 전시관이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개구리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총 10종의 개구리가 있었다. 이 중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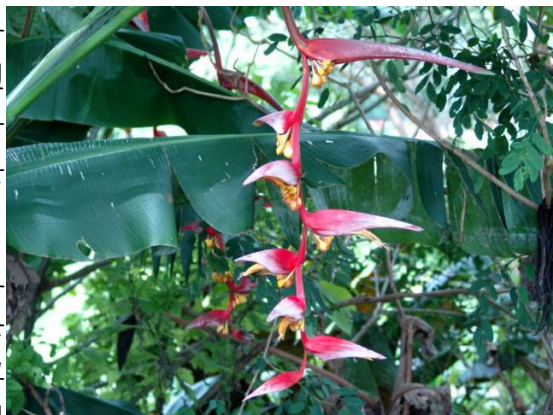


그림 4 극락조류 꽃

종이 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Dendrobates auratus*라는 빨간색 개구리는 주로 브로멜



그림 5 전시관에 있는 보아뱀 가이드는 설명하였다.

리어스 옆에만 알을 낳기 때문에 식생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개구리들은 대부분 크기가 아주 작은데, 랜턴으로 가이드가 비춰주며 설명을 했다.

이후 거미전시관, 개미전시관도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관람할 수 있었다. 타란툴라라는 몸체만 10cm인 끈적거리는 벌이라는 코스타리카 말이 붙은 벌도 관찰되었는데 쓰여도 알려지가 일어나는 정도일 뿐 독성 강하지 않다고

개미전시관의 경우에는 bullet ants 가장 큰 개미를 사육전시하고 있었는데 이개미는 독이 있으며 총알이 파고드는 것 같은 통증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메뚜기나 바퀴벌레를 먹이로 하고 있으며 예전엔 이 개미의 독으로 사냥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현재 연구자들이 이들의 생태에 대해 모니터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트레일 사이사이에 이런 전시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탐방을 흥미롭게 만들었다.

3)시청각 교육실의 참관

트레일 탐방을 통한 가이드 투어 형식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시청각 교육실을 방문하였다. 여기에는 각종 포스터와 전시물이 시각적 장치를 통해 전시되어 있었고 동물소리 새소리, 해변의 소리 등을 이용한 청각 교육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코스타리카 전역의 보호지역과 그곳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을 지역과 동물을 연계해서 보여줌으로서 현재 코스타리카의 자연현황을 개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국립공원을 포함해 보전지역은 29개 지역이다.

4) 인비오 공원 관계자 면담

이후 인비오 빠르게 이사이자 OTS(Organization for Tropical Studies) 부회장인 클라우디아 교수 면담을 통해 현재 코스타리카의 환경교육방향과 지역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보전지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지역아마추어전문가가 생물종 조사에 참여하는 생물종 보전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림 6 공원내에 있는 악어



그림 7 해설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교수

클라우디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코스타리카의 환경교육은 전략적 계획에 따라 초등, 중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사유지를 학교가 소유하면서 8개 보전지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전지역을 학생들이 수업에서 활용한다. 아울러 이 보전지역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고 보전지역은 지역주민들의 기부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가 보전해오던 곳을 민간에게 이양해가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코스타리카의 민간환경연구소나 단체의 현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클라우디아 교수로부터 코스타리카 최대 연구 기관으로서 OTS(Organization for Tropical Studies)라는 곳을 소개 받았다. 코스타리카와 미국 페루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캐나다 등 65개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0년째 생물종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처음 기관탐방 대상으로 뽑은 La Selva 연구소 운영 하고 있고, 또 전통있는 기관으로서는 몬테 베르데에 있는 열대과학센터를 설명하였다. 여기는 35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소이다.

클라우디아 교수로부터 소개 받은 인비오의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내년부터는 초등, 중등 비취열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멀리있는 학생들이 이틀 동안 머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교육과 결합되어 있다. 아울러 중요한 사업으로는 국가환경자원 목록화 작업(Para taxonomists 프로그램)인데 이 사업의 경우 지역의 농부나 사냥꾼 등 지역 전문가를 3달간 교육시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각분의 분야의 아마추어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워크



샷을 통해 식물이나 곤충 동정, 분류, 수집그림 8 공원에서 생태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방법을 교육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큰 기업에서 비용을 대는 스폰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인비오에서는 도시민들을 위한 농사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다.

인비오 재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금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스페인, 네델란드, 미국 등 특정 프로젝트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크게 생태관광, 보전활동, 파크레인저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면담 후 클라우디아 교수는 가이드투어에 포함되지 않는 인비오 파크 여러 곳을 직접 안내해 주었다.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습지, 미로 식물원 조성 예정지, 외래종 연구 사이트, 원예종 유실수 원, 워크샵 강의장, 동물농장, 농사기구 전시장, 식용식물, 목재용 나무, 나비관 등을 탐방하며 클라우디아 교수의 해설을 들었다. 나비관의 경우는 천정에 망을 쳐서 새들 침입 막았고 나비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었다. 코스타리카에는 나비 2000종, 나방 12만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식충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곳과, 인공습지 지하에 설치하여 실제 물속을 볼수 있도록 설계한 어류관, 그리고 열대림의 숲과 공연장이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연장을 탐방하였다. 공연장의 경우는 주변의 습지 생태공원이 한눈에 조망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한편 열대성 건조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트레일 바닥에 열대 수



목의 나뭇잎을 찍어 문양을 만들어 놓는 등 손쉬우면서도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었다.

5) 자원 봉사자 활동의 제도적인 측면

또한 가이드는 인비오 파크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생물학 전공자는 1주간 공원파악을 한 후 이틀에 걸쳐 해석 방법 등을 교수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공원에서 자원봉사로 일한다고 한다. 물론 다른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경우도 자원 봉사자로서 파크레인지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자원 봉사의 요건과 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경우는 최소의 석달간 체류해야하며, 스페인어의 기본적인 언어가 소통되어야하고, 자원 봉사가 가능한 추천서 등을 첨부해야하고 INBio가 할당한 일을 수행하여야한다. 내국인의 경우도 최소 한달간 협동 근무를 해야하며 한다. 그리고 회사나 학교, 학회 등의 추천서가 있어야하며 기관의 일에 술선해야 한다.

2) Braulio Carrillo 국립공원

코스타리카의 3대 대통령 브라울리오 까릴로의 이름을 딴 국립공원으로 수도인 산호세에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레디아 지방에 위치해있다. 면적은 50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며 고도 2871미터까지 4개 지역의 생물 분포대와 2개 지역의 과도적 변이대가 분포하고 있는데 열대우림-열대성 저산대(삼림한계선)-저산대-저산대우림으로 나눌 수 있다. 한때 전국토의 99%가 산림이었던 코스타리카, 그러나 지금은 5분의 1도 안되는 18%가량만이 남아있다. 특히 브리울리오 까릴로 국립공원은 공원 내의 식물 종만도 6000종에 이르고 라셀바 생태구역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 1,900~2,200종이 서식하는 생물종의 보고이자 마지막 안식처이다. 국립공원 아래쪽엔 La Selva지역이 있으며 이 곳은 해발 135m에서 35m까지 경사지를 형성하며 내려간다. 폭4~6km, 길이 18km의 좁은 회랑형태를 띄며 Peje and Guacimo강 사이의 원시우림지역이다. 실제로 이들 강의 분기점 모두가 이 공원에 속해있으며 Puerto Viejo and Sucio강의 상류는 공원 고지대를 지나는데 이 강은 깊은 협곡을 이루며 많은 폭포를 함께 거느리고 있다. Barva 화산은 여러 개의 분화구로 이뤄져 있는데 그지없이 맑은 Barva호수(직경 70m)와 Danta호수(직경 500m)도 이 화산에 포함된다.



그림 10 . 브라울리오 까릴로 입구 스테이션 2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광범위한 원시 열대림 보호구역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 남부지역 토양은 안산암(安山岩)과 현무암에서 비롯됐다. 2,000m 높이의 지역은 화산재 토양을 이루며 2,600m까지 올라가면 알갱이 모양의 화산재가 퇴적된 또 하나의 토양이 나타난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유기물질 성분도 증가하는데 1400m 이상의 고지대에선 부식토층이 쌓여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간정도 높이의 지대에서 산사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한다. 7월과 12월에 최대 강수량을 보이며 2월부터 4월까지가 그나마 건기에 속한다.



그림 11. 국립공원 내 트레일

다양한 생물종 분포와 열대우림의 원시성이 살아있는 브라울리오 까릴로 국립공원. 그러나 불과 30여 년 동안 산림의 대부분은 소를 방목하는 목초지로 변모했고 이로 인해 생

태적 고립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지역이 사유지로 전환되거나 불법 점유, 불법적인 벌목과 방목으로 인해 국립공원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익히 생물종의 보고(寶庫)라 들었던 브라울리오 까를리오 국립공원. 처음 만나게 될 열대우림의 모습은 어떨까 아침부터 일행들은 모두 부푼 기대를 품었다. 아침 7시 출발, 산호세에서 자동차로 불과 40여 분 거리라 얘기를 들었고,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면서 뒤로 서있는 울창한 산을 보며 국립공원에 가까이 왔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한참을 갔는데도 국립공원 입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지나는 길에 커다란 간판이 있어 들어갔더니, 그곳은 국립공원을 곤돌라를 타고 탐방하는 곳의 입구였다. 곤돌라 탐방은 현재 시설 공사 중이라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곳에 있는 안내인에게 국립공원의 입구를 물어보고 다시 차를 돌려 달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입구는 오리무중, 일행 중 한명이 작은 간판 하나가 지나온 길에 있었다고 해서 다시 차를 돌려다. 5분 정도 달리자 나무로 만든 국립공원 간판이 보였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비개방 지역을 빼고 개방이 가능한 4개 지구 중 한 곳인 센데로스 지구였다. 그러나 매표소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은 영어가 서툴렀고 안내문들도 모두 스페인어로 된 것 뿐이었다. 비지터 센터나 생태안내자도 없었다. 이곳에서 가능한 것은 두 개의 트레일 코스 중 한 곳을 택해 탐방을 해보는 것이었다. 우기인 관계로 오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스콜이 내린다. 우리는 열대우림에서 스콜을 만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 3시간짜리 코스를 포기하고 1.5km의 1시간 반 코스를 선택했다.



그림 12 . 트레일에서 발견한 호랑무당거미

입구에서 이런저런 실망을 했지만 막상 숲에 들어서자 입이 떡 벌어졌다. 2,30m가 넘는 키 큰 나무들, 키 큰 나무를 감싸고 다른 나무로까지 가지를 뻗어나간 덩굴, 나무 하나에 적어도 10종 이상의 식물이 공존하는 모습, 어른 주먹보다 큰 고사리, 우산만한 이파리(실제 그 식물의 이름은 poor man umbrella, 가난한 사람의 우산이었다.), 화려한 색과 모양으로 새를 유혹하는 꽃들, 쉬지 않고 들려오는 새들의 소리, 갖가지 모양의 이끼, 죽은 나무에서 새순을 올리고 있는 여러 종류의 풀들, 그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천지였다. 나무도 풀도 꽃도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었다. 거대한 자연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고, 그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다지 크지 않게 느껴졌다. 2시간가량을 그곳



그림 13. 트레일에서 발견한 초화류

숲에 머물렀는데,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숲에 홀려 다녔다.

탐방로는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좁게 만들어놓았는데, 비로 유실되는 부분을 수시로 고친 흔적이 보였다. 특히 물이 지나가는 자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철망을 깔거나 나무토막을 깔아 놓았는데, 작은 배려가 돋보였다. 그러나 중간에 식생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런 경이로운 숲을 안내하는 생태가이드가 있었더라면 감동은 더욱 커질 수 있었을 텐데, 생태관광국가라고 이름난 것에 비해 실제 탐방서비스는 미숙함을 많이 느꼈다.

3) Manuel Antonio 국립공원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은 19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산호세 남쪽, 태평양에 면해 있으며 고산지대인 산호세에 비해 이곳은 낮기온이 30도씨가 넘어가는 전형적인 열대의 기후를 나타내는 해안지역이다. 원래 미국인 소유의 당근농장으로 이용하던 것을 다시 숲으로 조성한 2차림의 숲이다. 따라서 해양성 숲과 산악성 숲이 공존하는 국립공원으로 휴양지로서 유명한 곳이다.

전날 미리 가이드투어를 예약해놓고 아침 7시 30분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가이드는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립공원의 탐방은 지역 안내자 협회의 해설가 윌리엄의 가이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탐방 시간은 3시간이었으며 필드스코프를 활용한 야생동물 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 탐방을 통해 관찰하고 직접 해설을 들은 생물종과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해설프로그램에서 관찰된 생물종

- 제롤크라운헤론 : 맹그로브숲 물고기 먹고 산다. 해오라기 모양이며, 다른 종으로 그린스로우헤론이 있다.
- 브라운펠리칸 : 사다새라는 한국이름을 가진 새로, 15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사르디나라는 물고리를 좋아한다.
- 만사니오 나무 : 수피와 열매에 독이 있어서 다른 생물들이 서식하거나 기생하기 어려운 나무이지만 브로멜리아드 만이 기생을 한다. 독특한 향이 난다.
- 와이어미요 나무 : 수피가 벗겨져 있어서 매끄러우며, 열매는 새, 원숭이 먹는다.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유실을 방지한다.
- 도마뱀 암/ 수 : 여기 도마뱀은 땅을 파서 10개 정도 알을 낳고, 잎과 꽃, 계를 먹기도 한다.
- 긴코박쥐 : 날개 접었을 때 8-10cm, 폈을 때 15-20cm되는 군집성 생물이다. 꽃의 단물을 먹으며 수분을 섭취하고, 나무색으로 위장한다. 박쥐는 모기의 개체수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다람쥐 원숭이 : 중미 특히,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에만 있는 원숭이이다.
- 캄보링고 나무 : 껍질이 위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보통은 울타리로 이용한다.
- 와일드로코스트리 나무 : 수액으로 니스칠같은데 사용하고, 50년 자라고 수명은 100년 정도이다.
- 마호가니 나무 : 가구재로 사용하고, 피아노 바이올린을 만드는 고급 목재로 쓰인다.
- 아르마넬로 : 천산갑이라고 불리는 동물이다. 작은 벌레 먹고, 땅 밑에 구멍을 파고 서식한다.
- 지저스크라이스트 도마뱀 : 예수가 물위를 걸을 때처럼 머리를 들고 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컷 모양이 화려하다.
- 슬로스 : 나무늘보라고 불리는 동물이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느리게 움직이며 20시간을 잠을 잔다고 한다. 발가락 2개, 3개 종류가 다른 나무늘보가 있다.
- 흰얼굴원숭이 : 유일하게 육식을 하는 원숭이이며, 임신기간 7개월쯤이다. 일년정도를 키우고, 20-25마리 무리지어 산다.
- 홀로명키 : 흰얼굴원숭이보다 크고 열매 먹고 살며, 6-7마리가 무리지어 산다.

해설자와 프로그램의 평가

의사보다 되기 어렵다는 코스타리카의 생태 가이드, 우리를 안내했던 해설자 윌리엄은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중간 중간 식물에 대한 특성도 설명을 했는데, 식물의 학명까지 줄 줄 외울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베테랑으로 탐방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안내자협회 소속의 안내자들이 공원내 탐방을 하는 동안 안내자끼리의 무전 교신을 통한 생물위치 등을 확인해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탐방의 흐름을 방해하고 해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숲해설자 개개인의 사전답사와 준비 등에 의존하는 탐방과 해설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상호 무선 교신 등을 통해 발견되는 생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관광성 해설이라고 할수 있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명성에 비하면, 셀프가이드나, 기초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리플렛이나 생태해설 보드 등이 자료들이 너무도 빈약하였다. 거의 해설자에 의존하도록 유지 시키는 관광 수입의 정책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생태관광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숲해설, 자연안내의 제도적인 측면

가이드 탐방을 마친 후, 이 지역 협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현재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에는 17명의 자연안내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없다. 그리고 이 안내자 협회는 올해 창립하였으며, 안내자 지역 협회가 있어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숲해설 안내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식생, 지리학, 생물학, 곤충학, 언어 등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치루어야 하며, 생태관광이 발전한 나라인 만큼 직업적인 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실제 수입이 농부는 월 300불, 은행원이 월 600불정도 되는데 성수기에 가이드는 월 2000불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4) Monteverde 운무림보전지역

몬테베르데(Monteverde)는 이 나라말로 ‘푸른 산’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푸른 산이 대표적인 자원으로 운무림(Cloud Forest Reserve)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다. 수도인 산호세로부터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으며, 민간소유의 보전지역이 생태관광으로 성공한 좋은 선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몬테베르데는 울창한 산림, 잘 가꾸어진 트레일, 코스타리카의 새인 깨짤(Quetzal), 치즈공장, 나비정원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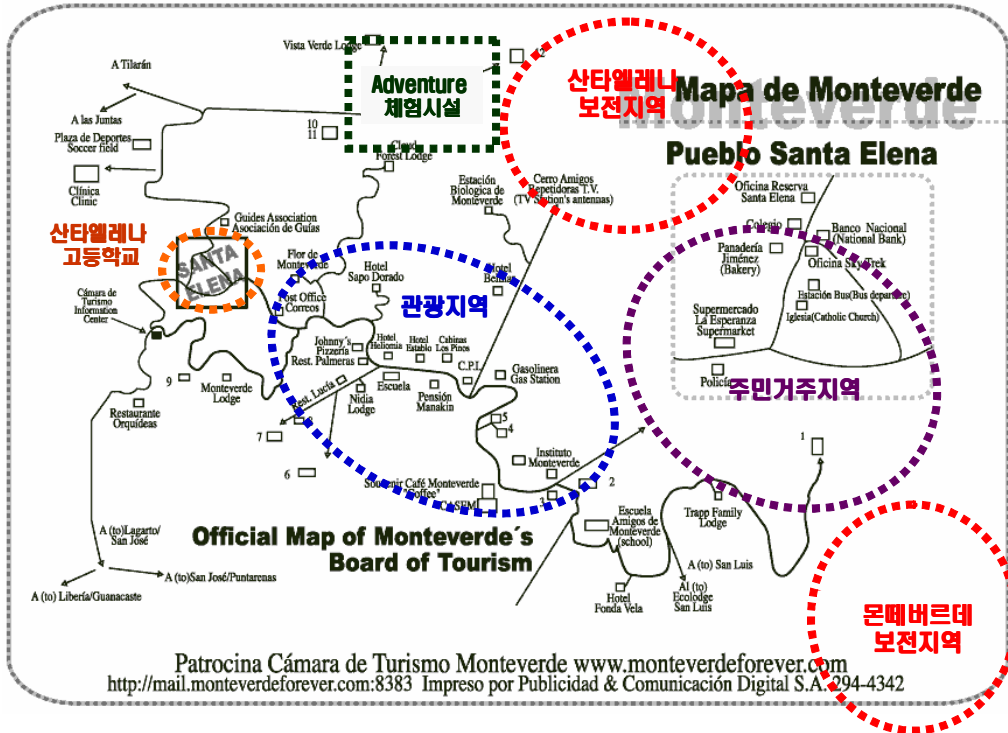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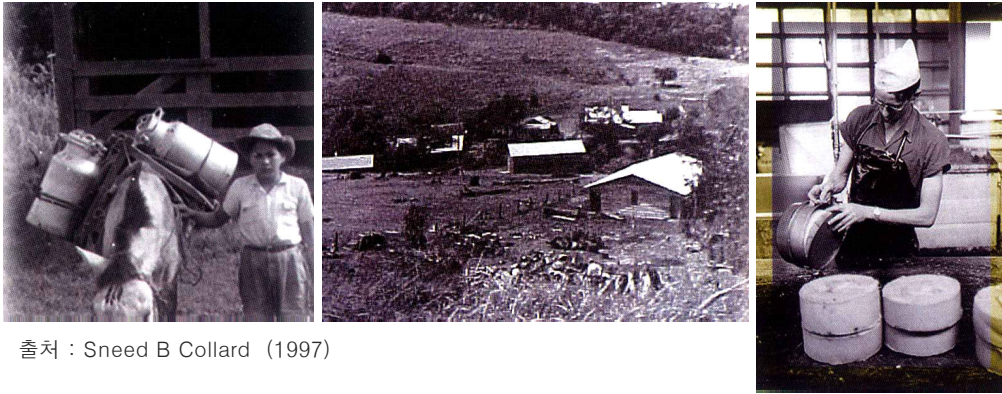


그림 14. 몬테베르데 보전지역과 산타엘레나지역의 공간구성

1951년 미국 앨러배마(Alabama)주의 퀘이커교도들이 징집과 수감을 피해 평화의 땅을 찾아 정착한 곳이 이 곳 몬테베르데 지역이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목축업을 시작하였고, 꾸준히 발전하여 현재는 코스타리카 제일의 유제품가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의 주산업인 목축업의 발달로 인하여 산림이 초지로 바뀌고 산림의 파괴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출처 : Sneed B Collard (1997)

그림 15 . 몬테베르데지역의 초장기 모습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1973년 열대과학센터(Tropical Science Center)를 만들어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활동과 보전활동을 시작했으며, 서구의 자연보호기관의 기부금으로 보전지역을 확대해 현재는 약 1만500ha에 이른다. 1980년대 북미지역 등의 서구에 언론매체를 통해 몬테베르데의 보전지역이 소개되고, 정부의 생태관광진흥정책에 힘입어, 관광객이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인구 35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연간 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이로 인해 한해 60만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방문객의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화획득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대다수가 자연경관감상이나 탐조 등의 자연관련 활동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그림 16. 몬테베르데 운무림보전지역 입구(좌)와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우)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보전지역의 이용증가로 대비하여 자연환경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6년 몬테베르데 보전연맹(Monteverde Conservation League)이 창설되었고, 주변 토지 2만2000ha를 추가 구입하여 보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에 방문객을 위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7명의 회원이 자연안내자협회를 만들고 관광객에게 생태안내와 흡연구역에 대한 안내, 쓰레기처리방법지도 등의 이용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깨짚과 멸종위기 조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보카도(Avocado)나무를 식재하는 등 생태계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몬테베르데 보전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은 그 주변지역인 산타엘레나(Santa Elena)마을

을 변화시켰고, 원래 농업이 중심산업이던 지역이 식당운영이나 호텔, 특산품가게, 스카이 워크 및 캐노피트램 등의 자연체험 어드벤처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 지역이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을 (1) 쉽게 갈수 없는 곳, (2) 과학자들에 의해 세심한 모니터링, (3) 잘 훈련된 가이드, (4) 응집력 있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지역사회 등으로 꼽고 있다. 실제 몬테베르데 지역을 체험해 보고 난 후 느낌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반인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생태관광은 환경교육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실제 관광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는 미흡한 편인데 이 지역의 경우 누구라도 자연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고 가벼운, 혹은 편안한 친환경적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데, TSC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역환경이 연구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단체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보전지역의 이용자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잘 훈련된 가이드를 통해서 지역환경을 잘 소개하고 있다.

지역내의 관광시설, 특히 숙박시설에 있어서 에코룻지인증제를 도입하여 폐수방류를 막기 위해 주방앞에 정화탱크를 설치한다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든지, 지역에서만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등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적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관광개발과 같이 대규모의 관 주도 혹은 대기업 중심의 관광지개발이 아닌 소규모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경영에 있어서 오랜 전통의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이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어 환경적 지속성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도 함께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코스타리카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마음씨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이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했다. 그러나 환경문화가 생활화되어 일상생활속에서 환경보전이 특별한 일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실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모든 것이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지역을 관리하고, 관광지를 운영하며,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의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발, 주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5) Tortuegero 국립공원

뚜르뚜게로(Tortuegero)는 이 나라말로 ‘청거북이’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 나라의 지명들에는 자연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만큼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의 자연과의 깊은 관련성 혹은 자연의 일부나 그 자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뚜르뚜게로 국립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뚜르뚜게로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강은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까리브해의 해안선과 나란히 강물이 흘러 바다로 나가는 특징을 가진 곳으로 원래 수많은 라군(lagoon)이 있던 곳으로 강의 폭도 좁았었는데 배의 이동 편이를 위해 물길을 연결시켜 놓은 곳이다. 강가의 숲은 과거 자메이카, 도미니카 등 까리브해의 다른 국가에서 정착해온 이주민들에 의한 벌목, 농업, 목축 등으로 인해 훼손된 열대우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회복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보트투어를 통해 강변의 생물들, 강가의 마을, 하구, 뚜르뚜게로 화산, 환경교육관 등을 볼 수 있었다. 확인된 주요식물로는 물참새피택사검정말부레옥잠갈대류피막이풀류생이가래 카빌란 나무샹그리로 나무야자수 등이 있다. 확인된 주요동물로는 몇 종의 어류, 벌새가마우지류뜸부기류해오라기류뚜간 등 조류와 이구아나도마뱀류케이먼 엘리게이터 등 파충류, 박쥐류나무늘보흰얼굴원숭이스파이더 원숭이콩고원숭이 등이 있다.



그림 17. 뚜르뚜게로 강 풍경

해안가 숲에 탐방코스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인공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 방문객이 쉽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트레일을 잘 개발해 두었다. 뚜르뚜게로 마을 인근에 위치한 숲으로 과거 벌목이 이루어져 생태계의 교란이 있는 곳을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과거의 행위들을 제한하는 중이라고 한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입장료를 내고 정해진 숲 탐사코스를 따라 약 1시간 정도의 탐사가 이루어진다. 탐방로를 따라 열대우림 지역내 워킹트리야자수개미류 거미류벌갯짚뚜잔원숭이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8. 트레일 내 걷는 나무

코스타리카 북서쪽 뚜르뚜게로지역의 까리브해에 바다거북산란지는 청바다거북의 고향이다. 청바다거북은 까리브해의 인적이 드문 모래 해변 사구식물군락지에 매년 알

을 낚으러 수백마리씩 찾아오고 있는데 매년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 주민들은 식용과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을 했으나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역민들이 감시자, 안내자, 보전주체로 나섰다라고 한다. 탐사 방법은 예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안내하여 알 낚는 장면을 공개하게 되는데 탐방객수를 하루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림 19. 청바다거북산란지(좌), 뚜루뚜게로강변 식당 주인집 아이와 함께(우)

5.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과 자격제도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의 개요

코스타리카는 생태관광에 있어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여전부터 생태관광을 도입하여 현재는 국가에 제1의 산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인대상으로 관광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고 이를 위한 해설자/안내자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1985년부터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관광이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북미와 남미의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 3세계 국가로서 경제성장이 국가적인 대업중의 하나인 코스타리카의 경우 풍부한 자연환경은 산업발달의 훌륭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원시림이 파괴되었다. 농업과 목축업의 발달은 자연을 폐쇄시켰고 이로 인해 1969년부터 보전지역지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다. 1970년대 초 30여개이던 보전지역이 현재 230여개로 확대되었으며, 전국토의 24.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60%가 미국과 캐나다인이며, 유럽인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0.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주요지역간 소요시간(비행시간기준)

주요한 관광프로그램은 다양한 해양 및 산악 레포츠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과 관련한 체험활동 등이 있다.

구분	응답률
Snorkeling 과 Scuba diving	22.5%
Whitewater rapids	15%,
Hiking	15%,
Sport fishing	12%,
Surf	9%,
Golf or tennis	8%
Bird watching	40%

표 2. 코스타리카 관광의 주요활동
출처 : 1996년 Tico Times 조사결과

패키지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경우 산호세를 중심으로 한 1일 이나 1박2일이나 2박 3일 등의 대부분이며, 보통 7일 이상의 장기 체류프로그램으로 레포츠활동과 함께 자연체험프로그램을 참가한다. 자연체험의 경우, 탐조와 자연해설 등의 정적 활동이 많으나, 어드벤처(Adventure)형 자연체험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다.

코스타리카 숲해설/자연안내 자격제도

코스타리카의 경우, 관광산업과 연계된 자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계형 직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격제도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이 직업적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시험을 통해 한다음 현장(시장)으로 투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안내자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나라에서는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군에 포함될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 면허가 곧바로 생계를 보장하는 안정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태관광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생태관광의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굳이 자격이 없더라도, 전문역량과 실제 경험만이 있다면 현장에서 살아남고 생계를 유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루뚜게로 패키지 생태관광에서 해설을 담당한, 안내자의 경우도 생물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공자이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돋보이고 그런 강점은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하나 중요한 제도적인 측면은, 지역에 관한 정책에 있다. 즉, 다른 지역에서 온 해설자, 안내자는 그 지역에서는 활동을 할수 없게 하는 정책적인 배려인 것이다. 또루뚜게로의 청거북 산란을 중심으로한 생태관광의 경우는 그 동네 주민들만이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하여, 생태관광이 직접 그 지역의 이익으로 남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경우, 그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잘알고 있고 고향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인으로 있다. 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의 생태환경을 알리는 것을 생계의 밑천으로 삼는다면, 그 지역의 생태환경은 보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개 지방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서울의 해설가나 안내자들이 출장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지역이 모두가 중심이 되어야는 생태철학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이 환경교육, 생태교육과 상호 교합하는 과정에서는 코스타리카처럼 지역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게 하는 제도적 정책적 시스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1. 숲속을 체험하는 오픈 케이블카와 유사한 기구와 레펠

6. 연수 성과와 후기

1) 연수 성과

■ 환경교육과 생태관광의 새로운 전망과제 설정에 대해

코스타리카의 열대림보호구 탐방과 숲해설, 자연안내 자격제도 연수의 기대성과로서는 우선 야외환경교육의 새로운 전망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좀 더 포괄적인 영역에서 놓고 그것을 위한 사회 환경과 인적 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교육적 측면이 부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야외 환경교육 측면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 생태관광이라는 요소가 부가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과의 지점이 다르다. 교육과 오락의 무게 중심에서 코스타리카는 오락의 측면인 관광에 더 쏠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에 더 무게가 쏠려 있다고 보여지고 그 완충의 형태로서 에듀테인먼트(Education+ Entertainment)적 활동이 프로그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교육이 야외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그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까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정책과 현재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우리 현실에 접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생태관광적 측면에서 숲해설과 자연안내 등의 위상을 설정하고 그 비전으로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제주풀빛문화연대, 제주 생태관광에 이러한 성과를 자문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숲해설, 자연안내 자격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야외 환경교육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검증되고 인증되는 시스템이 없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생태관광이라는 오락적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교육적 측면을 감싸 안으면서 야외 환경교육지도자를 길러낸다고 보여지고 이 과정은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 코스타리카 자연안내자와 파크레인저 등의 자격검정시스템은 교과과정과 학교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타리카 관광청 ICT에서 주관하는 안내자 자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태관광의 경우는 산업적 측면이 있고 시장의 논리에 의한 경쟁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의 문제 보다는 이후 활동의 경쟁력에 더큰 제도적인 강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숲해설과, 자연안내의 경우 현장에서의 설득력과 지도력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체험교육이나 오락의 수행능력이 중요한 셈이다.

■ 우리 실정에 맞는 자격제도에 대해

사회가 다원화 되고, 야외 체험학습이나, 생태관광 등 현장에서 교육과 오락 등에 듀테인먼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의 문제가 급속히 제기 되고 있다. 환경쪽에서는 환경교육사 같은 야외환경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바 있고, 숲의 경우 산림환경교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틀이 사회적 요구와 현실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야외환경교육의 경우, 현장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방법의 규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데 있다. 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규격은 시험이고 시험의 경우는 이론인데, 이론의 경우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즉흥적인 요소들이 강한 야외체험학습 지도역량의 검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이미 생태관광 등으로, 환경교육과는 다른 측면이지만 야외에서의 체험활동이 포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시험 등을 통과한 자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소위 산업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안내자로 나서는 것은 현장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자격의 문제를 고려해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원봉사와 같은 아마추어 시스템 보다는 직업적인 전망을 갖도록 이 분야의 산업적 요소를 더욱 진흥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망을 세운 양질의 인력이 수급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산업적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생태공원, 휴양림, 수목원 등을 한두명의 기능적으로 하여금 자원봉사라는 미명아래에서 많은 숲해설가, 생태교육자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관리하

는 상황에서는 그 자격이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숲해설 자연안내 프로그램에 관하여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열대림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다양한 환경교육이나, 야외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일부 지역에서의 관광상품으로서의 어드벤처 형 프로그램 이외에는 우리의 숲해설보다 다양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것은 코스타리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는 관찰과 해설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자원이며, 교육자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발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한편 이것은 외국인으로서의 프로그램이라는 제한된 상황일수도 있고, 내국인들의 현장학습이나, 숲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 할 수가 없었다. 다만 생태관광프로그램도 한편으로 고도의 자연환경교육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연수 결과물의 공유

연수 성과는 이 연수에 참가한 팀원마다 다르겠지만, 각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의 커다란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었으나, 그 성과가 단체나 사회로 어떤 방식으로 기여될 것인지는 팀원 각자의 역량과 생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수를 마친 뒤에 연수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고 그것이 개인의 자랑거리나 잡담으로 끝나서 단체나 사회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며 연수자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의 성과물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결과물들이 사회적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강연, 기고, 전시, 상영, 프로그램 기획의 지원과 자문 등을 기획하였다. 그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코스타리카 탐방 슬라이드 상영회 1회 : 장소-풀빛문화연대 세미나 실, 주관-풀빛문화연대 해설-유영초

· 주제 강연 1회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 장소-풀로엠티 집 제1강의실, 주관-풀로엠티 집, 강사-박휘

· 잡지 기고 2회 : 인터넷 신문 제주의소리-정상배, 월간 말지 11월호, 2005년 1월호, 월간 지오 2005년 1월호-유영초

- 보고서 출간 : 각 관련 단체 발송(예정)
- 생태관광 프로그램 기획에 자료 및 자문의 제공-제주폴빛문화연대, 제주 생태관광(1월~5월, 제주관광 대안찾기 프로그램)

3)후기

짧은 기간이지만 코스타리카 환경교육의 대표적인 현장, 대표적인 사립 생태관광지, 산과 바다 국립공원 등을 답사하였다.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기후, 자연환경, 경관, 고유문화, 사람들의 일면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받은 감동들은 일생을 통해 쉽게 잊혀지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번 답사를 통해 코스타리카는 국토의 면적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열대우림과 더불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목축과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코코넛농업으로 인해 열대우림의 대규모 훼손을 가져오고 있었다. 다행히도 현재 코스타리카 정부와 국내외 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를 기반한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는 나름의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인 듯했다.

코스타리카는 생태관광으로 유명한 나라로 한국에 있을 때부터 많은 연구보고서와 서적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생태관광 국가시스템을 구축과 체계화된 생태교육, 생태관광, 자연해설프로그램운영 등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실제 방문결과 전반적인 자연관리능력과 인프라부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인해 생태자원관리는 우리의 기대만큼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다만, 코스타리카를 통해서 개발과 보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지역 속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보았고,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과 보전’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옥심쟁이의 바보스런 시도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제 속에서 조심스레 이루어지는 발전의 한 모습임을 깨달았다.

이 글을 통해 답사를 후원해 준 교보생명 관계자와 동고동락을 통해 인연을 맺은 답사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